전북대, 임실 호국원 찾아 순국선열 참배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호국보훈의 달을 앞둔 지난 5월 31일 국립 임실호국원을 찾아 순국선열을 참배했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양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들은 호국원에서 현충탑을 참배했다.

전북대는 지난 2019년 임실 호국원과 '국립묘지 1사 1묘역 가꾸기' 협약을 맺어 결연 묘역을 정하고, 매년 참배와 나무심기 등 환경정화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지역과 조국의 안녕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것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전북대 본연의 역할"이라며 "지역발전을 이끄는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 폭넓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교육 실시

남원시는 민원 담당 직원들의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치유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 61명을 대상으로 경남 통영시 일원에서 '2024년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내 전 부서의 민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 폭언·폭행, 반복·고질 민원 등 각종 민원 응대에 따른 감정노동으로 지친 직원의 심신 재충전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부서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9일, 30일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 실내에서 진행되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외부 체험활동을 통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자가 회복하기 위해 경남 통영시를 방문, 루지 체험과 요트 세일링을 통해 이순신 장군 승전지 한산대첩 현장인 한산도를 둘러보는 경험을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천동농협 · 무주군농민회 등 농촌일손돕기 실시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무주군농민회무풍지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30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무풍면 일원에서 농촌일손돕기를 펼쳤다.

이번 일손돕기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천동농협·무주군농민회·무주군농업기술센터·무풍면사무소서 70여 명이 참여,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풍면 관내 농가 농업현장에서 다양한 농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구천동농협 조합장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함께하는 구천동농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시, 마을 어르신들 위한 모정 안전디딤돌 설치

정읍시가 마을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기 힘든 모정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명 '안전디딤돌'을 설치했다.

이 사업은 지난 상반기 의회 업무보고에서 김석환 시의원이 건의한 사안으로, 시는 민간모정 725개소를 전수조사해 이용이 불편한 모정 44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길이 1.5m, 높이 20㎝의 디딤돌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이고 시민 체감이 높은 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친목과 화합 다지는 뜻깊은 시간 되길"

익산 실내체육관서 '제19회 전북자치도 · 시 · 군 청원경찰 가족 한마음대회' 열려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31일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시·군 청원경찰 가족 한마음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익산시와 익산시청원경찰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북도청원경찰협의회가 주관, 전북자치도 및 14개 시군 청원경찰과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헌율 익산시장과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재관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장, 고영완 익산경찰서장, 익산시의원도 함께했다.

행사는 익산시립풍물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감사패 전달 및 표창장 수여, 개회선언 등 개회식이 진행됐다. 이어 체육행사, 시군별 장기자랑과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져 청원경찰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우애를 다졌다.

특히, 이날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에서 마련한 소정의 이웃돕기 성금이 익산시에 전달돼 온정의 마음이 더해졌다.

정헌율 시장은 "한문화의 발상지이자 백제문화의 중심지인 익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정성성의껏 준비한 행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 청원경찰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시·군 청원경찰 가족 한마음대회'는 현업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도내 청원경찰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이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진안군, 제11회 대한충효 행정부문 '충 · 효 대상' 수상

진안군은 대한충효대상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11회 대한충효대상'에서 충·효 행정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대한충효대상제전위원회는 매해 충·효·예 부문에서 모범이 되는 기관·단체·주민을 대상으로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공기관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주 바울센터 그레이스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전춘성 군수가 참석했다.

진안군은 노인인구가 9,598명으로 전체 인구의 39.1%를 차지하고 있는 초 고령지역이다.

군은 인구 특성에 맞춰 335개소 전체 경로당에 원적외선 온열기 보급, 비데 설치, 이·미용비 확대 지원,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노인일자리 확대, 치매노인을 위한 삐망 인공지능 도입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는 등 노인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장한어버이 유공자 표창, 효도수당 지원을 통해 효문화를 장려하고 확산시켰다.

특히 도내 최고액 보훈명예수당 지급, 보훈회관 건립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를 위한 사업도 내실 있게 실시하고 있어 충·효 사상의 확산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춘성 군수는 "충과 효는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현 사회에서 공동체의식과 상호 의존성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가치"라며 "진안군도 소중한 전통문화인 충·효를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어르신들이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죽항동 행정복지센터, 1일 1가구 소통행정 추진

남원시 죽항동 행정복지센터는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 안부를 살피고 불편 사항을 청취해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죽항동은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총 486세대를 방문하여 복지상담 및 공적급여 신청, 주거환경 개선, 방문 건강상담 및 혈압 측정, 안전/돌봄(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네이버클로바케어콜 안부전화), 건의사항 청취 및 후원물품 전달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2024년도에는 방문 대상 유형을 독거노인, 취약계층에서 모든 주민으로 확대하고 현재까지 202세대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살피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우수시책을 발굴해 △복지허브화 연합모금 사업 △꿈을 키우는 장학금 지원사업 △돌봄 취약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돌봄 취약 가구 밑반찬 지원 사업 △손잡음 사람이음 사업 △복지+건강증진 프로그램 △사랑의 이(미)용 서비스 등의 시책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죽항동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치매안심센터, 신규 치매 선도단체 현판식

정읍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달 31일 정읍시니어클럽을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신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치매 극복 선도단체'란 치매 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다. 전 직원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을 지지하고,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 치매 극복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하게 된다.

치매안심센터는 정읍시니어클럽과 지난 2월 읍·면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을 지킴이 사업 관련해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이번 치매 극복 선도단체 지정을 통해 치매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가 치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치매와의 행복한 동행이 될 수 있도록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도통동 복지팀 등,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 개선

남원시 도통동(동장 소선자) 맞춤형복지팀은 지난달 31일, 일자리경제과 가가호호 생활안전닥터 사업팀, 시민소통실 120민원봉사대, 서남방역 등과 관내 어렵고 힘든 이웃의 집을 깨끗이 치우고 정리해 주는 지원을 펼쳤다.

도통동은 1일 1가구 소통 행정을 통해 취약계층부터 모든 주민에 이르기까지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청취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활동은 1일 1가구 방문에서 추진한 중장년 1인 가구로 대상자가 지병인 간경화로 외출이 어렵고 청소와 정리 정돈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집이 산 아래에 위치해서 지네와 각종 해충의 위험도 있었다.

대상자는 "몸이 불편해 집안을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고, 힘들었는데 도통동복지팀과 동장님이 방문해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심(心)(소생)술 팀, 심폐소생술 대회 소방안전원장상

순창소방서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일반인 심폐소생술 대회에서 대학·일반부 '심(心)(소생)술'팀이 한국소방안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엔 각 시도 대학·일반부와 학생·청소년부에서 우승한 각 19개·38개 팀 등 23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순창소방서 소속으로는 지난 4월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심(心)(소생)술'팀이 출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대학·일반부 '심(心)(소생)술'팀은 평소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갈등 중심지로 쓰러진 시어머니를 심폐소생술하는 상황을 설정해 무대를 꾸며 한국소방안전원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회에 참가한 필리핀 이주여성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위급상황에 올바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도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한다"며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 너무 보람된다"고 말했다.

이상일 소방서장은 "바쁜 일정에서도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해준 순창군가족센터와 이주여성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주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생활목공예반 재능기부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생활목공예반 수강생들이 6개 읍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어르신들과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수강생들을 위해 직접 제작한 테이블 세트를 기증하여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생활목공예반 10명의 수강생들이 "배워서 남 주자"라는 주제로 목공예에 대한 이해와 기초과정을 배우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테이블 세트를 제작 기부하며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목공예반 재능기부는 7개의 입식 테이블과 7개의 의자를 만들어 용추 경로당, 북리 경로당, 교동 경로당, 왕정 마을회관, 도소 마을회관, 마산 마을회관, 안성청소년문화의집에서 어르신들의 쉼터와 수강생 및 청소년들의 활동 진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석진숙 센터장은 "배낸 지역을 위해 땀 흘리며 테이블 세트를 제작하면서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고 지역을 위해 우리가 만든 작품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뿌듯하였다"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 일대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나눔봉사를 하려면 향후 5년간 지역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지속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대강면, 찾아가는 장수 사진 서비스 진행

남원시 대강면(면장 김종표)은 지난달 31일,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32명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장수사진 서비스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대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 특화사업"과 시 농촌종합지원센터 "농촌 찾아가는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선정해 메이크업, 사진 촬영, 광한루 탐방까지 진행하고, 사진은 깔끔한 보정을 통해 고급 사진액자로 제작하여 어르신들에게 직접 배달할 예정이다.

한 어르신이 "오랜만에 소풍 나와서 참 좋구만. 그나저나 내가 구인와사가 와서 사진이 예쁘게 나올지 모르겠네."하자 맞춤형복지팀 직원은 "아이구 걱정마세요. 뽀샵처리 예쁘게 해드릴게요."라고 응대해 드렸다.

대강면 맞춤형복지팀 이아영 팀장은 "홀로 어렵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